

문헌을 통해서 본 ‘戒盈盃’의 유래와 ‘器玩’으로서의 가치

鄭소라*

- | | |
|----------------|------------------|
| I. 머리말 | IV. 기원으로서의 ‘계영배’ |
| II. ‘계영배’의 전래 | V. 결론 |
| III. ‘계영배’의 시작 | |

• 국문초록

본고는 『冠巖全書』와 『松南雜識』 그리고 『省窩文集』 등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계영배’가 지닌 완상용 공예품 ‘기완’으로서의 성격을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계영배’의 전래와 최초 제작 시기 및 제작 배경을 추론해보고, 의미와 가치를 당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해보았다.

『관암전서』에는 18세기 이전 ‘계영배’의 원형이 될 수 있는 도자기 잔이 중국에서 洪敬謨의 집안으로 전해졌고, ‘君子杯’라고 명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55년 완성된 『송남잡지』에는 ‘계영배’라는 항목이 실려 있어, ‘계영배’의 최초제작시기를 『관암전서』가 쓰인 1824년 부터 1855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었다. ‘계영’이라는 이름은 중국과 무관하게 조선에서 명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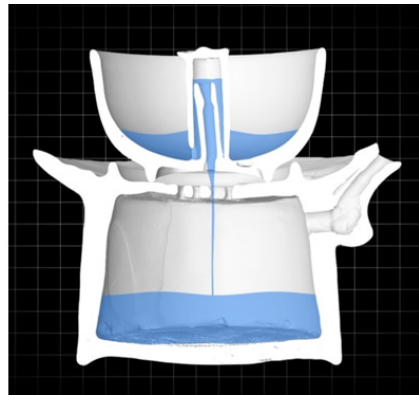
‘계영배’에는 ‘말과 행동을 경계하여 실수하지 말라’, ‘과욕을 삼가하여 중용을 지켜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술잔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감상을 위한 완상용 공예품인 ‘기완’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계영배, 군자배, 완상용 공예품, 기완, 가장기완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자공예학과 박사과정 수료

I. 머리말

‘계영배’는 ‘사이펀(siphon)’이라는 관이 설치되어 있어, 일정량 이상 액체가 차면 내용물이 모두 아래로 빠져 버리는 독특한 잔이다(〈사진 1〉).¹⁾



〈사진 1〉 ‘白磁陽刻梅花文戒盈盃’. 조선,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이미지 조선일보 20220.10.13기사

연관된 문헌으로는 분원의 貢人이었던 池圭植(1851~?)의 『荷齋日記』와 淺川巧(1891~1931)의 『朝鮮陶磁名考』 두 가지가 알려져 있다.²⁾ 그 중 『하재일기』 1904년 12월 10일 일기에 “시험 삼아 계영배를 만들고,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 가득

-
- 1) ‘사이펀(siphon)’은 대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관을 말한다. ‘계영배’의 제작방법과 제작배경에 대해서는 방병선, 「19세기 백자 연적과 계영배를 통해 본 조선시대 기교자기 제작의 함의」, 『미술사학연구』 309, 한국미술사학회 참조.
- 2) 『하재일기』는 司饗院 廣州 分院이 分院貢所로 민영화된 후 貢人으로 일하던 지규식이 고종 28년(1891)부터 1911년까지 20년 7개월에 걸쳐 쓴 일기이다. 분원의 운영과 연관된 제반 사항은 물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근대기 전반 사회상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공인으로서는 물론 한 개인으로서 당대 사회의 변화를 자세하게 묘사한 ‘하재일기’의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이를 근거로 국문, 국사, 미술사, 음악, 사회, 민속, 약학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논문들이 작성되고 있다.; 『조선도자명고』는 아사카와 타쿠미가 조선에 머물 당시 사용되던 도자기에 대한 명칭과 용도를 그림과 함께 정리한 저서이다. 이 두 문헌에 ‘계영배’가 언급된 사실은 방병선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 방병선, 앞의 논문, 84~85면.

찬 것이 갑자기 텅 비게 되니, 중앙을 지나 바닥까지 범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 ‘계영배’라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³⁾ 스스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시험 삼아 만들었다(試造)’고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 ‘계영배’를 만드는 것이 흔하고 익숙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기에는 또한 “세상 사람이 술을 탐하여 자주 실수를 범하여 응당 잔의 면(面)에 따라 채우고 비워짐이 보이게 만들었네”라는 구절이 있어, 물이나 차가 아니라 술을 담았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종종 실수를 하므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알 수 있다.⁴⁾

1931년 출간된 『조선도자명고』에는 “이 잔은 일정량의 술이 차면 사이펀(siphon)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내용물이 잔 받침으로 흘러내리는 장치가 있다”라는 설명과 잔의 특징을 잘 살린 그림이 실려 있다(〈사진 2〉).⁵⁾ 지규식보다 약 반세기 후에 태어난 그는 잔의 구조는 물론 원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명칭과 쓰임을 함께 정리한 다른 도자기와 달리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당시 잔은 사용되었으나 ‘계영배’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더 이상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이처럼 특별한 잔이 언제 어떻게 제작이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와 최초 제작 시기 제작 배경 등 잔과 연관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⁶⁾ 가득 차면 비워지는 모습을 통해 절제와 연관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잔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홍경모(1774~1851)의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 『관암전서』와 趙在三(1808~1866)의 『송남잡지』 그리고 李寅梓(1870~1929)의 『성와문집』에서 ‘계영배’와 연관된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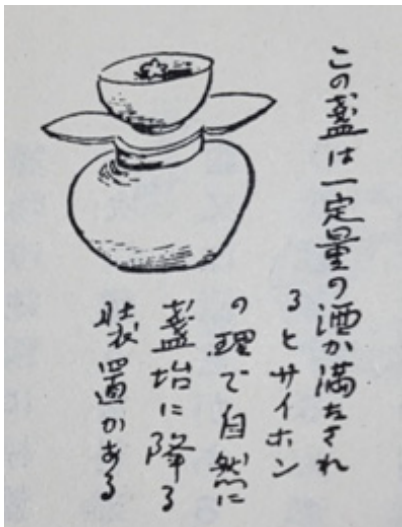
본고는 이들 문헌을 바탕으로 술잔으로만 여겨졌던 ‘계영배’가 감상을 위한 완상용 공예품인 ‘기완’으로 여겨졌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 장에서 『관암산

3) 池圭植, 『荷齋日記』 1904년 12월 10일. “甲寅 晴 試造戒盈盃 …… 滿盈忽作空虛地, 勿過中央犯尾閭”

4) 池圭植, 『荷齋日記』 1904년 12월 10일. “多謝世人貪麴孽, 須從盃面示盈虛”

5)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朝鮮工藝刊行會, 1931, 49면.

6) ‘계영배’에 대한 연구로는 방병선, 앞의 논문, 79~105면; 구혜인, 「朝鮮後期 陽刻白磁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74~75면; 「朝鮮後期 陽刻白磁研究」, 『미술사학연구』 263, 한국미술사학회, 120면이 있다. ‘계영배’의 제작 배경에 대해 방병선은 조선 후기 중국 기교자기 유입과 사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방병선, 앞의 논문, 93~98면. 조선 후기 실학자 河百源(1781~1844)이 고안하고 도자기장인 우명옥이 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밝혀진 바 없다. 구혜인, 위의 논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74면.



〈사진 2〉『조선도자명고』 세부이미지

방신편운석외사』 전편 9책에 실린 ‘四宜堂志’와, 『관암전서』의 ‘家藏器玩銘引’, ‘家藏器玩銘’, ‘君子杯記’라는 글을 통해 잔의 유래를 알아보았다. Ⅱ장에서는 『송남잡지』 ‘계영배’ 항목에 실린 내용을 분석해 최초 제작 시기와 제작 배경에 대해 추론해보았다. 마지막 Ⅲ장에서는 위 기록들에 『성와문집』의 ‘粉田曹氏家玩戒盈盃’라는 시를 더해 잔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았다. 또한 완상용 공예품을 뜻하는 단어로 ‘기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아본 후 ‘계영배’가 단순한 술잔이 아니라 ‘기완’으로 인식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기완’으로서의 ‘계영배’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쓰

임이 있는 실용기라는 점이 부각되었던 근대 이전 공예품에 대해 완상전용 공예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현재 제작되는 완상용 공예품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계영배’의 전래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홍경모는 ‘사의당지’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살았던 ‘四宜堂’이라는 저택과 그곳에 소장되었던 많은 물품들을 소개하였다.⁷⁾ 글에 따르면

7) 홍경모는 조선 후기 대표적 京華世族 남양 홍씨 가문의 일원이다. 대사헌을 거쳐 이조·호조·예조·병조 판서를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冠巖存藁』, 『冠巖外史』, 『冠巖遊史』 등 15종 190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글은 문학적 비유와 꾸밈없이 객관적이고 고증적이어서 19세기 전반 조선의 건축, 역사, 미술, 미학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의당지」는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原敍’로 ‘사의당’의 내력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5장은 堂宇, 形勝, 眺望, 花石이라는 제목 하에 건물의 구조와 내외 경관, 근처에 있는 명소들을 적었다. 6장과 7장은 홍경모 집안의 소장품 목록이다. 6장은 書畫上下라는 제목으로

‘사의당’은 6대조인 洪柱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 괴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많은 서화와 각종 奇物이 소장되어 있었다.⁸⁾ 소장되었던 기물들은 총 27가지인데 그중 ‘군자배’라는 잔이 있다. 홍경모는 ‘군자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구워서 만든 자기(磁器)로 높이는 3촌, 넓이는 2촌 남짓 되며, 깊이도 높이와 같지만 조금 작다. 가운데 신선이 사는 박산(博山)을 놓았는데 화초의 모습을 잡다하게 새겼다. 박산 안에는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아래로 밑바닥과 통하게 되어 있다. 술이 반쯤 차면 새지 않고 술이 완전히 차면 아래로 흘러나간다.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⁹⁾

‘구워서 만든 자기(以磁燔之)’라는 표현에서 잔의 재질이 도자기임을 알 수 있다. 1촌은 약 3센티이다. ‘군자배’라고 불리는 도자기 잔은 높이가 9센티, 넓이는 6센티쯤 되고 안쪽에 화려하게 꾸며진 산 형상 장식이 있는데, 잔이 차면 내용물이 모두 아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잔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멍이 있는 장식이 있어서 잔이 차면 내용물이 모두 빠져버리는 도자기 잔’은 ‘계영배’이다. 그런데 이 잔은 ‘군자배’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古碑의 拓本, 글씨와 그림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7장은 기원으로 각종 기물들에 대한 글이다. 총 27개 기물의 유래와 특징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8번째 기물이 ‘군자배’이다. ‘사의당’ 전판과 소장품에 대해서는 『관암산방신편운석외사』 전편 9책, 『관암전서』 책 23 「사의당지」와 홍경모 저, 이종목 역,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9. 참조.

- 8) ‘사의당’이 홍씨 가문의 소유가 된 것은 홍경모의 6대조 홍주원이 宣祖 임금의 첫째 딸 貞明公主와 연혼을 맺으면서부터 이다. 인조는 고모인 정명공주에게 ‘明禮宮’터를 하사하였다. 정명공주는 7남 1녀 중 넷째 아들인 洪萬懷에게 그 집을 물려주었다. 홍만회가 물려받은 집을 1671년 보수 후 ‘사의당’이라고 이름하며 ‘사의당’이 시작되었다. 이후 洪重聖, 洪鎮輔, 洪良浩, 洪樂源을 거쳐 홍경모에게 이르렀다. 世祖가 왕위에 오르기 전 지냈던 ‘潛邸’가 ‘명례궁’ 옛터였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사의당’은 과거 ‘진고개’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우체국과 충무로 2가 뒤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9) 『冠巖全書』冊 23, 「四宜堂志」, 器玩第七, “以磁燔之, 高三寸濶二寸許, 深如高而小, 中安博山, 雜試花鳥之象, 博山之內設機, 穴于中而下通于底, 酒半則不漏, 滿則盡洩于下, 使飲者不得滿杯也” 이종목은 ‘以磁燔之’를 ‘도자기를 구워서 만든 것으로’라고 번역하였으나, ‘도자기’는 이미 구워진 것이므로, ‘구워서 만든 자기’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잔의 이름이 왜 ‘군자배’인가는 ‘가장기완명인’과 ‘가장기완명’이라는 글을 통해 알 수 있다.¹⁰⁾ 글에는 ‘사의당지’ ‘군자배’에 없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실로 천하의 기이한 물건(奇器)으로 마시는 사람이 잔을 가득 채울 수 없다.
이에 명(銘)을 지으니 다음과 같다. 바다에는 바닷물이 새는 미려(尾閭)가 있고,
하늘에는 가득 차고 떨어지는 이치가 있네, 군자가 이를 본받아 형상을 만들어
기물을 제작하였다.¹¹⁾

‘군자배’의 형상과 특징만을 객관적으로 적었던 ‘사의당지’와 달리 사람의 힘으로 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천하의 기이한 물건으로 여기는 자신의 감정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미려’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큰 구멍이다. 이곳으로 바닷물이 끊임없이 새어들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한다.¹²⁾ 즉, 이 신기한 잔은 바다에는 구멍이 있어 바닷물이 새지 않고, 하늘에는 가득 차면 떨어지는 이치를 따라 군자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늘과 바다의 이치를 따르는 군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군자배’라고 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같은 추정은 ‘군자배’만을 설명한 단독 글인 ‘군자배기’에서 좀 더 확실해진다.¹³⁾ ‘군자배기’에는 술의 용도와 과음에 대한 경계, ‘樽’, ‘觴’, ‘爵’과 같은 각종 술잔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등 술잔과 연관된 일반적인 내용을 적은 후 잔의 명칭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실로 천하의 기이한 물건(奇器)으로 마시는 사람이 잔을 가득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명명하여 ‘군자배’라 한다.¹⁴⁾

10) ‘가장기완명인’과 ‘가장기완명’은 ‘사의당’에 소장되었던 기물들에 대해 ‘사의당지’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銘은 비석이나 물건 등에 연관된 功績이나 내력을 적는 것이다. ‘가장기완명인’은 ‘가장기완명’을 위한 서문이다. ‘가장기완명’에는 ‘사의당지’에서 “지금은 없다(今亡)”라고 적은 ‘石雄黃恠石’과 ‘청강석괴석’ 항목이 없고, 대신 ‘사의당’ 정원과 계단에 놓여있는 ‘恠石’과 ‘石龜’가 실려 있다.

11) 『冠巖全書』 冊 10, 「家藏器玩銘」, “信天下之奇器, 而飲者不得滿盃也, 銘曰, 海有尾閭之洩, 天有滿損之理, 君子以之, 尙象制器.”

12) 『莊子』 秋水篇 “天下之水, 莫大於海, 萬川歸之, 不知何時止而不盈, 尾閭泄之, 不知何時已而不虛”

13) ‘記’는 인물, 물건, 풍경 등 여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한문의 문체를 말한다. 홍경모는 여러 기물들 중 오직 ‘군자배’만을 위해서 ‘기’를 남겼다.

부어도 잔이 차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이야기 한 후 잔이 ‘군자배’라고 불리운다고 적었다. ‘가장기완명’의 내용과 합쳐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가득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군자이고, 군자가 그 이치를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잔의 이름을 ‘군자배’라고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 龍泉窑青釉公道杯, 남송~원말, 높이 6.6cm

‘군자배’는 18세기 이전 홍경모 집안에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이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된 바 없고, 『관암전서』보다 앞서는 기록 역시 알려진 것이 없다. 반면 중국에서는 唐대부터 ‘사이판’이 적용된 잔에 대한 문헌이 있고, 南宋 말대부터 유물이 전한다(〈사진 3〉).¹⁶⁾

14) 『冠巖全書』 冊 18 ‘君子杯記’ “儘天下之奇器, 而飲者不得滿盃者也. 故名之曰君子杯”

15) ‘사의당지’는 1810년 이전, 『관암전서』는 1824년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가장기완명’에 대부분의 기물은 소장된 지 약 100여년이 흘렀다고 되어있으므로, ‘군자배’는 적어도 18세기 이전 소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선, 「冠巖 洪敬謨의 詩文과 그 性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65면. 『冠巖全書』 冊十二, 引, 「家藏器玩銘引」 “我家自沁園析產分居, 器玩之可寶者實多, 而於今百餘年之間, 所存者玄鶴琴, 自鳴鍾, 犀角, 樺榴硯匣筆筒, 君子盃, 瑪瑙盃如斯而已” 이중묵은 ‘군자배’가 貞明公主(1603~1685)에서 비롯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중묵, 앞의 책, 33~35면.

16) 중국에서 현전하는 ‘계영배’ 중 가장 시기가 빠른 것은 남송 말 융천요에서 발견된 청자이지만 문헌기록에서는 당대부터 이와 같은 형식의 잔에 대한 기록이 있다. 张杨, 「中国古代酒器“公道杯”设计研究及创新设计应用」, 『包装工程』 41, 中国兵器工业第五九研究所, 2020, 326~327면; 〈사진 2〉는 柴怡, 「高陵元墓新出土龙泉窑青釉公道杯」, 『收藏』 340, 陕西省文史馆, 2017, 56면 재인용, 〈사진 3〉은 张杨, 앞의 논문, 327면, 재인용. 중국에서는 唐대부터 같은 원리가 적용된 注子가 ‘倒流壺’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청자연적’과 조선시대 ‘백자연적’에 같은 원리가 적용된 유물이 남아있다. 방병선, 앞의 논문, 81~88면.

따라서 '군자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그런데 근대 이전 중국에서 이러한 구조의 잔이 '군자배'라고 불린 적은 없었다.¹⁸⁾ 문헌상 가장 앞서는 이름은 '神通盞'으로 당대에 사용되었다.¹⁹⁾ '平心杯'라는 명칭은 명대 문헌에서 보인다.²⁰⁾ '戒貪杯', '神龍杯', '公道盃', '계영배' 등의 이름은 1900년대 이후 추가되었다고 추정된다(〈사진 4〉).²¹⁾ 따라서 '군자배'라는 이름은 홍경모 집안의 누군가가 잔의 특징을 보고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전반 이전 내용물이 넘치지 않는 신기한 잔이 이름 없이 중국에서 전해지자, 가득 차면 떨어지는 자연의 이치를 아는 군자의 이미지를 따라 '군자배'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였던 것이다.

编号	FC 1	FC 2	FC 3	FC 4	FC 5	FC 6
图片						
年代	宋末元初	元代	元代	元代	元代	明代
窑口	龙泉窑	龙泉窑	龙泉窑	龙泉窑	龙泉窑	德化窑
现藏	临海市博物馆	烟台市博物馆	西安市文物保护考古研究院	私人藏家	私人藏家	德化陶瓷博物馆
编号	FC 7	FC 8	FC 9	FC 10	FC 11	FC 12
图片						
年代	明代	清雍正	清乾隆	清光绪	清光绪	民国
窑口	景德镇窑	宜兴窑	宜兴窑	宜兴窑	景德镇窑	景德镇窑
现藏	贵州省博物馆	故宫博物院	私人收藏	故宫博物院	私人藏家	私人藏家

〈사진 4〉 중국 공도배분석표

- 17) 유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방병선 역시 앞의 논문에서 “중국 도자 수요의 확대로 중국 도자의 활발한 유입이 이어졌고, 이때 중국 도류주자와 공도배에 사용되었던 ‘사이편의 원리’가 조선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방병선, 앞의 논문, 93~96면.
- 18)张扬, 앞의 논문, 325~326면.
- 19)陶谷,『清异录』,「器具門」,“文宗属宦竖专横,动即掣肘,以酣饮为娱,嫔御厌患之,赂内执事造黄金盞,以金莲荷芰为玦束盘,其实空,盞满则可潜,引入盘中,人初不知也,遂有“神通盞”,“了事盘”之号”;史梦兰,『全史宫词·卷十三·唐』“当宴呼报君王醉,偷换神通了事盘”
- 20)王世懋撰,『王奉常文集』第二十三卷 铭部 平心杯铭“漏其卮,实以酒,半则弗漏,满则弗受,岂唯弗受,并丧厥有,庶几哉,宥坐之,戒可以长守”张扬, 앞의 논문, 326면 재인용.
- 21)北宋대 기록에서 ‘공도배’라는 명칭이 나온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중국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된 의견은 아니다. ‘계영배’ 명칭에 관한 중국 측 문헌기록은 张扬, 앞의 2020 논문, pp.325~326 내용을 따랐다.

이와 같은 추정은 ‘군자배기’의 끝맺음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군자배기’는 다음과 같은 글로 마친다.

노나라 왕의 사당에 宥座之器가 있는데 가득차면 뒤집어지고 알맞으면 바르게 있으니 어찌 또한 이 잔의 종류가 아니겠는가?²²⁾

‘군자배’를 ‘유좌지기’와 같은 종류의 잔이라고 본 것이다. ‘유좌지기’란 孔子의 언행을 기록한 『孔子家語』에서 나오는 그릇의 이름이다.²³⁾ 가득 차면 뒤집어지고, 비면 기울어지기 때문에 내용물을 적당히 채워야만 곧게 서는 그릇이다(<사진 5, 6>).²⁴⁾



〈사진 5〉 孔子觀欹器圖, 야마토문화관

사람의 힘으로 가득 채울 수 없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군자배’와 이치가 같지만 뒤집어지면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과 밑으로 흘러서 잔이 비는 것은 차이가 있다. 원리와 구조가 전혀 다른 두 그릇을 같다고 한 것은 비교가 가능한 같은 구조의 잔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잔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니

22) 『冠巖全書』 冊 18, ‘君子杯記’, “魯王之廟, 有宥座之器, 滿則覆中則正, 其亦是杯之類乎?”

23) 『孔子家語』 卷上 三恕 第九, “孔子觀於魯桓公之廟, 有欹器. 夫子問於守廟者曰 此謂何器? 對曰, 此蓋為宥坐之器. 孔子曰 吾聞宥坐之器, 虛則欹, 中則正, 滿則覆.”

24) 〈사진 5〉는 張世宗, 『侑座欹器尖底瓶』, 『美育』 214, 耕耘幼兒美感花園, 2016, 44면, 재인용.



〈사진 6〉清代光緒帝仿銅製宥坐之器,
국립고궁박물관

이름 역시 알 수 없었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것이다.

홍경모는 조선 후기 대표적 경화사족의 일원으로 대대로 귀중한 서화와 기물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장하였고, 소장 시기와 유래 등 소장품과 연관된 자세한 설명을 남겼다.²⁵⁾ 그런 그가 ‘군자배’의 서술에 ‘계영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조선에는 아직 ‘계영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토해본 사실은 ‘계영배’와 같은 형식의 잔이 18세기 이전 중국에서 전래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며, 동시에 『관암전서』가 완성된 1824년까지 조선에는 ‘계영배’가 없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Ⅲ. ‘계영배’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계영배’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송남잡지』라는 문헌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송남잡지』는 조선 후기 유학자 송남 조재삼이 1855년(철종 6년) 저술한 類書이다. ‘유서’란 여러 항목을 類別 또는 字別로 분류, 편찬하여 찾아보기 편리하게 되어있는 책으로 지금의 백과사전과 같은 종류이다.²⁶⁾ 4435개의 항목을

25) 『관암전서』, 「가장기완명인」과 「가장기완명」에는 자신이 소장했던 모든 기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26) 『송남잡지』는 총 14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문, 지리, 역사, 철학, 언어, 의식주, 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33개의 類, 4435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어, 당시의 학술적·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송남잡지』의 구성과 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영옥, 「조선 후기 類書의 전통과 『松南雜識』」,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양영옥, 「趙在三의 松南雜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조재삼 지음, 강민구 옮김, 『교남국역 『송남잡지』』 소명출판, 2008, 해제 참조.

33개의 類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器用’이 포함된 19번째 ‘什物類’ 23번째 항목이 ‘계영배’이다.²⁷⁾ 홍경모의 『관암전서』보다 31년 후이고 지규식의 『하재일기』보다 46년 빠른 기록에서 ‘계영배’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잔의 형태에 관한 서술은 없지만 이름으로 미루어 현전하는 ‘계영배’와 같은 잔이었을 것이다. 조재삼은 ‘계영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僉載’에서 말하길 漢王 元嘉의 구리로 만든 학 모양의 준은 가득 차면 바로 서고 차지 않으면 기울었다. 周廟의 欹器는 가득 차면 뒤집어 지고 중간쯤 차면 바로 서고 속이 비면 기울어졌다. 지금의 戒盈 역시 그러한 물건으로 ……²⁸⁾

‘첨재’는 당나라의 문인 張鷟이 편찬한 『조야첨재』라는 책을 말한다.²⁹⁾ 한왕 원가는 중국 후한의 연호로 추정된다.³⁰⁾ ‘준’은 중국 고대 술을 담는 의식기이다(〈사진 6〉).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조야첨재』라는 책에 따르면 한나라 초기 왕실에는 술이 가득 차야만 바로 서는 학 모양의 의식용 술그릇 ‘준’이 있었다’라는 뜻이다.³¹⁾ 현재는 새 형태의 ‘준’만 전할 뿐 설명과 같이 내용물의 양에 따라 그릇이 움직이는 유물은 없다(〈사진 7, 8〉).



〈사진 7〉 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 27) 조재삼은 芝峯 李睟光의 말을 빌어 什物이란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器用”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조재삼, 『송남잡지』, ‘집물류’ “什物, 芝峯曰, 器用謂什物云人家常用之器.”
- 28) 『송남잡지』 ‘집물류’ ‘계영배’ “僉載曰, 韓王元嘉, 銅鶴尊, 滿則止, 不滿則傾, 周廟欹器, 滿則覆, 中則正, 虛則欹, 今戒盈亦是物而.”
- 29) 『조야첨재』에는 수말부터 당초 그리고 남북조시대 조정과 민간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 30) 元嘉는 중국 後漢 桓帝 劉志(재위 146~168) 때의 세 번째 연호이다. 151년 1월부터 153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두산백과사전’ 원가(元嘉).
- 31) 현전하는 준은 원형, 사각형 象形 등 다양한 모양이 있으나, 모두 안정적인 형태로 내용물의 양에 의해 그릇이 기울만한 종류는 없다.



〈사진 8〉 鳥尊, 山西博物院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의기’는 가득 차면 뒤집어져 안에 있던 것이 다 쏟아져 버리고, 비면 바로 서지 못하고 기울듯하므로 그릇의 중간쯤 차도록 내용물을 담아야 했던 周나라의 의식기이다. 앞 장에서 홍경모가 이야기한 ‘유좌지기’의 다른 이름이다.³²⁾ ‘유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古事와 古書를 찾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조재삼은 중국과 우리의 각종 전적을 섭렵해 각 항목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³³⁾ 하지만 중국에 같은 원리를 이용한 잔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조선에 같은 형식의 잔이 전래되어 ‘군자배’라고 명명되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내용물의 양에 따라 기울거나 뒤집어 쏟아져 버린다는 중국 고대 의식기로 설명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今)의 계영 역시 그러한 물건으로’라는 문장은 『송남잡지』가 저술될 당시 ‘계영’이라 불리는 잔이 조선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굳이 쓰지 않아도 문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당시 잔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암전서』가 저술된 1824년부터 『송남잡지』가 완성된 1855년 사이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압 차이를 이용해 가득 차지 않는 독특한 구조의 잔이 제작되었고, 넘치지 않는다는 특징에 어울리는 ‘계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여진다. ‘군자배’의 존재는 ‘계영배’의 제작에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영’은 근대 이전 중국에서는

32) 『공자가어』에서 ‘유좌지기’를 ‘의기’라고도 칭하고 있다. 주 23 참조. ‘의기’의 ‘의(飲)’는 ‘기’라고 읽히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송남잡지』를 국역한 강민구 선생의 번역에 따라 ‘의기’라고 했다.

33) 백과사전은 저자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설명함으로써 그에 대해 완전한 개념을 파악하고 과거의 사실과 현대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반면 『송남잡지』와 같은 ‘유서’는 내용에 대한 고서의 진위를 찾아 바로잡고, 기존에 있던 각종 서적에서 자료들을 뽑아 정리하여 기록하여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으로 편찬자의 견해는 거의 첨가하지 않는다. 양영옥, 앞의 논문, 265면.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므로 제작기술은 영향을 받았으나 유물의 이름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³⁴⁾

IV. ‘기완’으로서의 ‘계영배’

‘계영배’가 술잔이었다는 것은 『하재일기』와 『조선도자명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음료를 따를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잔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었고, 일상의 잔과는 다르게 취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관암전서』, 『송남잡지』와 더불어 『성와문집』의 ‘粉田曹氏家玩戒盈盃’라는 시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계영배’에 부여했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³⁵⁾

잔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실수를 경계하라’이다. 지규식은 『하재일기』에서 ‘세상 사람이 술을 탐하여 자주 실수를 범하니 …… 중양을 지나 바닥까지 범하지 말라’라고 읊었다.³⁶⁾ ‘사람들이 양껏 술을 마시고 취해 종종 실수를 하지만, 이 잔은 중간 이상 술을 채우면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모두 흘러내려 텅 비게 되니 적당량만 따라 마셔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다. 과음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재삼의 글에서도 같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송남잡지』 ‘계영배’ 항목은 ‘莊子’가 이른바 ‘扨言’이다’라고 마무리된다.³⁷⁾ ‘계영배’와 ‘치언’이 같다고 본 것이다. 치언의 ‘扨’는 술잔을 뜻하는 한자로, ‘치언’은 ‘술잔에 담긴 말’을 뜻한다. 즉, 잔의 형태에 따라 담겨진 술의 모습이 바뀌 듯이 형편에 따라 바뀌는 말이 ‘치언’이다.³⁸⁾

34) 조재삼과 같은 인물이 중국에 같은 형식의 잔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계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점 그리고 현전하는 조선의 ‘계영배’와 중국 계영배의 형태와 문양에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중국과 무관하게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계영배’를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5) 『省窩文集』 卷之一 詩 ‘粉田曹氏家玩戒盈盃’

36) ‘바닥’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문에서는 ‘바다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뜻하는 ‘미려(尾閭)’로 쓰여 있다. 이것은 『관암전서』 ‘가장기완명’조와 같은 비유이다. 주 11 참조.

37) 『송남잡지』 ‘집물류’ ‘계영배’ “莊子, 所謂扨言也.”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영배’와 ‘치언’이 같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두 가지가 같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잔’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나 ‘술잔’과 ‘말’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있고, 양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둘을 같다고 본 것은 형태가 변한다는 일차적인 이유와 더불어 담겨 있는 의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 수위 이상 부으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계영배’에 말과 행동을 삼가해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치언’에도 순간을 위해 바뀌는 말을 경계해 화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술잔인 ‘계영배’와 상황을 모면하는 말인 ‘치언’이 같다고 한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과욕을 삼가하라’이다. 홍경모와 조재삼은 ‘계영배’를 ‘유좌지기’에 비유했다. ‘유좌지기’는 내용물이 적당히 채워져야만 바로 서고, 가득 차거나 기울면 모두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본래 그릇이라기보다는 과욕을 삼가하여, 중용을 지키라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기물로 인식되었다.³⁹⁾ ‘계영배’에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항상 살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중용을 지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했을 것이다. ‘분전조씨가완계영배’라는 시에서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유학자 이인재가 粉田에 살고 있던 曹氏 성의 지인이 가지고 있던 ‘계영배’를 본 후 그 감상을 적은 칠언절구의 시이다.⁴⁰⁾ 지규식의 『하재일기』와 같은 시기인 20세기 전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¹⁾ 그는 ‘계영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었다.

덧없는 삶 과분한 욕심에 괴로움 그치지 않으니
 발을 싸매고 다투어 얻어진 수레 앞으로 달려가네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꽃은 (늘) 무성하지 않고 달도 (늘) 둥글지 않다네

38) 치언(卮言)은 『莊子』 「寓言」편에 실린 단어이다. 『莊子』 寓言篇 “寓言十九, 重言十七, 卮言日出, 和以天倪 …… 卮言日出, 和以天倪, 因以曼衍, 所以窮年.”

39) 『孔子家語』 卷上 三恕 第九 “孔子曰, 吾聞宥坐之器, 虛則欹, 中則正, 滿則覆, 明君以爲至誠, 故常置之於坐側.”

40) 분전(粉田)은 경상남도 김해군 菴山 美音里 粉田洞으로 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을 말한다.

41) 한국역대문집총서 No. 1005 『省窩先生文集(省窩文集)』 설명에 따름.

문헌을 통해서 본 ‘戒盈盃’의 유래와 ‘器玩’으로서의 가치

계영'한 기물 참으로 보배로우니
사람으로 하여금 조석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네 ……
浮生奢望苦不止, 裹踵爭趨覆轍前.
所以至人貴虛受, 花不離披月未圓.
戒盈一器真堪寶, 令人日夕自乾乾.

삶이 덧없음에도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미 었어진 수레로 달려가는 과욕을 부려 오히려 삶을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덕이 높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인(至人)은 마음을 비울 줄 알고, 꽃과 달과 같은 모든 사물은 항상 최고에 이르면 기울 줄을 알듯이, ‘계영배’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유좌지기’와 같이 과욕을 경계하는 기물과 직접적으로 비유하지는 않았지만 글의 흐름상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잔에 담긴 가치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계영배’에 내재 된 의미만큼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인재는 ‘계영배’를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그대 집안에 보배로 간직한 백옥 술잔
신공의 오묘한 기교(機巧)인 듯 화공이 갈아 만든 듯하네
곧게 뻗은 매화 가지 그려졌고
새겨진 황금테는 검붉게 빛나네
가득하면 줄고 차는 그림자와 메아리 같으니
한순간 먼저 채웠던 수고와 함께 없어지네
처음 기이한 기교 볼 땐 진정 헤아리기 어려운데
가만히 사물의 이치 미루어보면 자연스러운 이치라네 ……
君家寶藏白玉罍, 神工妙機化工研.
杈枒無恙畫梅查, 髣髴光已泐黃金圈.
滿損盈虧如影響, 一瞬并與前功捐.
始看奇巧儘難測, 靜推物理理自然.

‘집안의 보배(家寶)로 간직한’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집안에서 매우 소중한 보물로 여겨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옥 술잔’이라고 하였으나 중국과 우리나라

라에서 아직 옥으로 된 것은 발견된 적이 없고, 매화문은 우리나라 ‘백자 계영배’에 시문 된 대표적인 문양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백자양각매화문계영배’를 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사진 8〉). ‘신공의 오묘한 기교(神工妙機)’ 또는 ‘진정 헤아리기 어려운 기이한 기교(奇巧儘難測)’라고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 9〉 백자양각매화문계영배 석점, 국립중앙박물관

그는 이어서

그 보배로 어찌 상자 가득한 금을 부러워하리
그 명성 파사국(波斯國) 가게의 보물과도 나란하지 않다네
厥珍那羨滿籛金, 其名不列波斯塵.

라고 하여 금으로 가득 찬 바구니나 페르시아(波斯國)의 보물보다도 귀한 보배라고 극찬하였다. 이인재의 반응은 지규식과는 사뭇 다르다. 지규식은 직접 만들어 볼 정도로 ‘계영배’의 구조를 잘 알았고, 담담한 어조로 시를 읊었다.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계영배’는 엄청난 양의 금이나 보기 드문 외국의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시의 제목은 ‘분전조씨가완계영배’이다. ‘家玩’이란 집안에 두고 즐겨 볼 수 있는 완상용품을 뜻한다. 금은보화보다도 비싼 가치가 있다고 비유한 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제목이다. 개인이 아끼고 사랑하므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완’과 값어치가 커서 누구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모를 리 없던 그가 ‘가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계영배’가 귀한 가보인

동시에 늘 곁에 두고 즐겨 바라보는 완상용품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생각은 홍경모의 글에 더 잘 나타난다. 홍경모는 '사의당지' 중 '기완'이라는 항목 안에 '군자배'를 포함시켰다. '기완'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완상용 그릇'이다. 하지만 '기완' 조에 포함된 총 27개의 기물을 보면 악기, 가구, 문방구류 등으로 그릇보다 훨씬 다양한 각종의 공예품들이 포함되어있다.⁴²⁾ 홍경모의 구분을 따르면 '기완'이란 곁에 두고 즐겨보는 수많은 완상품 중 특히 공예품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대대손손 전해 오는 귀한 완상용 공예품들을 알리고, 앞으로 자손들이 이를 잘 보관할 수 있을지라는 걱정과 함께 이들을 '기완'이라는 항목으로 묶어 소개한 것이었다.⁴³⁾

이인재는 '계영배'를 보물로 표현하며 집안에 두고 즐겨 완상하는 '가완'으로 칭했고, 홍경모는 집안의 가보로 소개하며 완상용 공예품인 '기완'으로 분류했다. 이들에게 '계영배'는 술을 담아 마시는 술잔이라기보다는 늘 곁에 두고 즐겨보는 귀한 완상용 공예품인 '기완'이었던 것이다.⁴⁴⁾

42) '기물'은 홍경모가 '사의당지', '기완'조에서 사용한 단어이다. 신기하고 귀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43) 홍경모는 고비, 탁본, 글씨와 그림을 묶어 '書畫' 항목으로 6장에서 먼저 소개한 후 7장에 공예품들만을 묶어 소개하였다. 『冠巖全書』冊二十三, 志「四宜堂志」, 器玩第七, “家自沁園析產分居, 器玩之可寶者實多, 而於今百餘年之間, 所存者如斯而已 …… 凡我後昆, 其敢不十襲藏奉, 守而勿失乎.”

44) 지금까지 근대 이전 공예품에는 '쓰임' 또는 '용도'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완상용 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드물었다. 하지만 「사의당지」 '기완'조를 통해 완상을 위한 공예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했고, 이를 통칭하는 단어로 '기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玩物'이라는 용어가 있다. 장남원은 愛玩의 대상이 된 완상용 도자기를 '완물'로 보고, 실용기가 아닌 완상용 도자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장남원,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조선 후기 玩物 陶瓷」, 『미술사학연구』 39, 한국미술사학회, 2012, 132~163면. 그러나 문방기물은 공예품의 '완물'은 회화와 글씨는 물론 동물, 식물 등 완상하고 즐기는 모든 사물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고동서화'라는 단어 중 '고동'이 완상용 공예품을 뜻하기는 하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나 완상용품이 된 공예품을 뜻하므로 완상의 용도로 제작된 공예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의당지」 '기완'조를 기준으로 볼 때 완상용 공예품을 지칭하는 단어로 '완물'과 '고동'보다 '기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몇몇 개인의 기록을 당시의 보편적 인식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관암전서』는 당대 최고 경화세족의 일원이자 대학자인 홍경모의 저술이고, 『송남잡지』는 『芝峯類說』(1614)과 『星湖僊說』(1670)을 잇는 유서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하며 현재의 관점으로 재단된 것이 아닌 당대인의 시각에서 해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완상만을 위한 공예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V. 결론

조선의 학자들은 자신이 愛藏하고, 玩賞하였던 ‘계영배’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를 통해 몇몇 사실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조선후기 학자이자 문신인 홍경모의 『관암전서』에는 18세기 이전 ‘계영배’와 같은 구조의 잔이 중국에서 전래 되었고, ‘군자배’라고 명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집이 완성된 1824년까지 조선에는 같은 형식의 잔이 없었다는 추론도 가능했다.

충북 괴산 출신 유학자 조재삼이 1855년 저술한 백과사전식 유서 『송남잡지』 ‘집물류’조에 실린 ‘계영배’라는 항목을 통해서는 『관암전서』가 완성된 1824년부터 『송남잡지』가 저술된 1855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계영배’가 시작되었고, 중국에는 없는 ‘계영’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이 명명되었음을 알아보았다.

‘계영배’에는 ‘말과 행동에 대한 경계’와 ‘중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마시고 싶은 술을 가득 따르면 오히려 텅 비어 버리는 잔을 바라보며 과음으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항상 행동을 경계하고, 과욕을 삼가하여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되새겼던 것이다.

홍경모의 분류 기준으로 볼 때 ‘기완’은 완상용 공예품을 뜻하는 단어이다. ‘계영배’는 술잔이라는 용도가 있었으나, 이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잔으로 늘 곁에 두고 완상하는 완상용 공예품인 ‘기완’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지금까지 ‘계영배’의 유래와 최초 제작 시기 및 제작배경을 추론해보고, 당대인의 시각에서 잔에 담긴 의미 및 가치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기완’이라는 단어의 개념 정리를 시도함으로써 근대 이전 ‘완상용 공예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최초 제작 시기 및 제작 배경과 연관된 직접적인 내용과 ‘기완’이라는 용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현전하는 ‘계영배’ 유물과 문헌의 내용을 비교하고, ‘기완’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찾아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洪敬謨, 『冠巖全書』, 한국고전종합DB
李寅梓, 『省窩文集』, 한국고문서자료관DB
『孔子家語』 卷上 三恕, 동양고전종합DB
『莊子』, 第17篇, 秋水, 第1章, 동양고전종합DB
『莊子』, 第27篇, 寓言, 第1章, 동양고전종합DB
陶谷, 『清異錄』 「器具門」, 维基文库, <https://zh.wikisource.org>
史梦兰, 『全史宫词·卷十三·唐』, 中华典藏, <https://www.zhonghuadiancang.com>
- 조재삼 저, 강민구 역, 『교남국역 송남잡지』, 1권·9권, 소명출판사, 2008
홍경모 저, 이종묵 역,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 18세기 사대부가의 주거 문화』, 휴머니스트, 2009
- 강석화, 「19세기 京華士族 洪敬謨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2001
구혜인, 「朝鮮後期 陽刻白磁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朝鮮後期 陽刻白磁 研究」, 『미술사학연구』 263, 한국미술사학회, 2009
김동건, 「洪良浩家 燕行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8
김미란, 「京華勢族의 庭園造營 特性에 關한 研究 : 조선말기에 조성된 정원을 중심으로」,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수진, 「18세기 재경사족의 문화감각과 유만주의 서화취향」, 『한국문화』 6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방병선, 「19세기 백자 연적과 계영배를 통해 본 조선시대 기교자기 제작의 함의」, 『미술사학연구』 309, 한국미술사학회, 2021
손정희, 「洪敬謨의 『山居十供記』와 19세기 淸供의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 6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양영옥, 「조선 후기 類書의 전통과 『松南雜識』」,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5
_____, 「趙在三의 松南雜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이경화, 「姜世晃의 〈淸供圖〉와 文房淸玩」, 『미술사학연구』 271·272, 한국미술사학회, 2011
이군선, 「冠巖 洪敬謨의 詩文과 그 性格」,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_____,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3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5

- _____, 「豊山 洪氏 門中の 家門意識 -洪良浩와 洪敬謨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43,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 임지윤, 「조선 후기 공예품에 보이는 螭龍文 고찰」, 『고문화』 8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4
- 장진성, 「조선 후기 古董書畫 수집열기의 성격: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 정우봉, 「『荷齋日記』를 통해 본 근대전환기 개인의 일상과 사랑」,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20
- 趙燦英, 「조선의 지식인 宋南 趙在三 논고」, 『괴향문화』 28, 괴산향토사연구회, 2020
- 진재교, 「이조후기 문예의 교섭과 공간의 재발견」, 『한문교육연구』 2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최은진, 「식민지 시대 조선의 공예와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7
- 栗新华, 「公道杯·常满樽·阳燧樽漫说」, 『邵阳学院学报』 2, 邵阳学院学报, 2003
- 张杨, 「中国古代酒器“公道杯”设计研究及创新设计应用」, 『包装工程』 41, 中国兵器工业第五九研究所, 2020
- 張世宗, 「侑座鼓器尖底瓶」, 『美育』 214, 耕耘幼兒美感花園, 2016
- 淺川巧, 『朝鮮雜陶磁名考』, 朝鮮工藝刊行會, 1931

<http://onkoshya.sakura.ne.jp/joukyouji/1865/>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2167>

https://www.sohu.com/a/212870412_740892

欽器图片 - 百度一下<http://g13.baidu.com>

The origin of ‘Gye Young-bae’ and its value as ‘Ki-wan’ through old literatures

Chung, So-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Gyeyeongbae(Pythagorean cup)’ as a ‘Giwan(器玩)’, an appreciation craftwork, focusing on the contents of 『Gwanamjeonseo(冠巖全書)』, 『Songnamjapji(松南雜識)』 and 『Seongwamunjip(省窩文集)』. To this end, the introduction, the initial production period, and the background of ‘Gyeyeongbae’ were inferred. Also, the meaning and value wer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ho lived in the era.

『Gwanamjeonseo』 conveys that a ceramic cup, the original form of ‘Gyeyeongbae’ before the 18th century, was handed down from China to Hong Kyung-mo’s family and named “Gunjabae”.

In the 『Songnamjapji』 completed in 1855, there was a clause of ‘Gyeyeongbae’. Completed in 1855, 『SongNamJapJi』 contains an item called ‘Gye Young-bae’. Hence, the first production period of ‘Gye Young-bae’ could be considered between 1824 and 1855, when 『Gwanamjeonseo』 was written. The name ‘Gyeyeong’ is thought to have been named in Joseon regardless of China.

‘Gye Young-bae’ contained the meaning of ‘Be careful not to make a mistake in your words and actions, ‘Be careful not to overextend yourself and keep the moderation’, and it can be seen that rather than being used as a drinking cup, it was regarded as a ‘Giwan’, a craft for appreciation.

Key Words : Gyeyeongbae, Gunjabae, appreciation craftwork, Giwan, Gaganggiwan

